

근대 주체성의 근거로서의 피히테 지식론에 대한 연구

-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대현*

주제분류 인식론, 근대 독일관념론철학

주요어 근대 주체성, 피히테

요약문

본고의 주제는 피히테 지식론 체계의 주요 개념인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세 개념이 피히테 체계에서 근대적 주체성을 보장하는 주요 요소임을 밝히는 것이다. 근대적 주체성이란 의식의 최종 근거를 자아 내부에 내재한 자립성인데, 그는 스피노자적 실체와 실천적 영역의 총합에 의식의 최종 근거의 특성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따라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이 실체적 특성과 실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 요소가 인간 의식의 근대적 주체성을 근거한다.

실체적 특성은 Tathandlung의 총체성과 대응하며 Tätigkeit의 생성적 특성과 Streben의 지속성은 실천적 특성에 대응한다. 실체의 완결성은 현상의 다양성이 표출되는 근원이며 Tathandlung이 가진 행위와 행위의 성과라는 두 범주는 의식 현상이 표출되는 근원인 점에서 Tathandlung의 총체적 특성은 실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Tathandlung의 이러한 실체적 특성에 대해 Tätigkeit, Streben은 실천적 특성을 더한다. Tätigkeit은 무한성의 이념을 축으로 무한성을 향한 절대 자아와 표상적 자아와 비아의 유한적 전개를 이끄는 생성하는 능동적 힘이다. 또한 Streben은 이 운동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한다. 생성적 특성과 지속성은 자기원인에 기반을 둔 창

* 성균관대학교

조적 힘과 같은 것이며 총체성과 결합하여 살아 있는 하나의 완전한 창조적 본체가 된다.

요컨대,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은 어우러진 하나의 완전체이며 스스로 운동하며 그 능동적 운동을 지속하려는 살아있는 의식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요소의 작용이 어우러져 그것으로부터 모든 구체적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근대 주체성의 근거’는 총체성 · 생성 · 지속성에 각기 상응하는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혼연일체 가운데 있다. 이 세 요소의 혼연일체 된 작용은 실천적 특성과 독단론에서 의식 주체가 의존하던 실체적 특성과의 합일인데 이것으로 주체는 완전한 자립성을 가지고 세계 해석의 근거를 자신으로부터 찾고 삶과 세계의 본질을 스스로 구축해나갈 권리와 역량을 보장받게 된다.

I. 서론

근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철학의 흐름 이후 서양사상사는 칸트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인간 주체의 자율성이라는 기치를 축으로 근대를 이어온 칸트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선회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간 주체의 자율성의 근거를 구축하고자 했다. 주요 저작을 통해 칸트는 인간 주체 중심의 근대적 체계를 인식론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는바, 이 과정에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하나의 토대 속에서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함을 받게 되었다. 독일관념주의 철학의 본격적인 문을 연 피히테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물자체나 실체와 같은 자아 너머에 있는 타자로부터 인식의 근원을 찾고자 하면 칸트나 스피노자와 같이 타자에 대한 주체의 종속을 야기한다. 그래서 타자에 종속되지 않는 주체는 인식의 근원으로서의 물자체나 실체와 같은 궁극적 산출자를 자기 내부에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산출하는 주체는 하나의 사물로도 하나의 존재만으로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행함, 확고한 행위’라는 실천적 자립성을 표현하는 추상적 제시어로서 다가설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성이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지성 자신에게 드러나는 본질적 자아는 ‘행위함’ 그 자체이며, 행위를 지시하는 자기 외부의 타자가 아니다.¹⁾ 피히테는 인식 체계의 근원을 이러한 학적 이념 하에 자신의 전체지식론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피히테의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가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독일관념주의 철학의 기본 시스템은 이후에 전개될 셸링과 헤겔의 체계

1) 니콜라이 하르트만, 『독일관념론철학』, 이강조 옮김, 서광사, 1990, 77쪽.

로 전달된다. 따라서 피히테에 대한 이해는 독일관념주의 철학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거대한 철학사적 위치에 가려져 그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²⁾ 국내의 경우, 피히테 관련 연구 논문의 수를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피히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권기환을 비롯해 배우순, 백훈승, 한자경 등의 국내 학자들이 피히테를 다룬 바 있다.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주제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독일관념주의 체계의 형성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피히테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체지식론의 기초』에서 전체지식론의 체계에 대한 주석적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필자는 부족하나마 피히테 연구 주제의 또 다른 부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피히테 전체지식론 체계가 어떻게 인식 주체의 근대적 자립을 근거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저자는 인식의 근원을 토대 지으려는 피히테 지식론의 취지를 중심으로 그가 전체지식론 체계에서 제시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³⁾ 이 세 개념에 주목한다. 따라서, 정신적 본체의 세 요소로서의 이 세 개념이 어떤 특성에 의해 인간 의식의 근대적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고에서 다루는 논점이다.

2) 권기환, 「피히테의 자기의식론」, 『헤겔연구』, 제26집, 한국헤겔학회, 2009, 198~199쪽.

3) 본 용어들은 각기 ‘사행 · 실행’, ‘활동성’, ‘욕구 · 노력’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한국어 번역이 오히려 개념 원래의 뜻에 다가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 규정된 한국어 번역어를 제시하지 않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자 한다.

II. 독일관념론과 피히테의 문제의식

독일관념론을 달리 표현하자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이성 중심의 철학이 그 완결을 성취해 나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성 중심의 철학은 곧 인간의 자율적 주체성이라는 근대적 발상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다. 주체로서의 인간이 스스로 법칙을 구축하고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상사에 있어 거대한 전환임에는 틀림없다. 중세적 신의 자리를 인간 모두에게 내재된 보편적 이성이 대신한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이성을 가진 인간 모두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인정이다. 따라서 데카르트 이후 이성 중심 철학의 전개는 이성을 토대로 하여 인간 의식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발견해내느냐이다. 이것은 인간 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여겼으므로 근대로부터 그 완성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철학의 근본 주제가 된다.

이성이 가진 근본적인 능력은 ‘비판력’과 ‘정합적 설명력’인데 이러한 이성의 능력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주의는 합리적 비판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의 양 축을 형성한다. 하지만 비판주의가 회의주의로 귀결하고 과학적 자연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 충돌은 계몽주의의 한계점으로 나타난다.⁵⁾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독일관념주의의 출발에 단초를 제공한 칸트의 체계가 등장한다. 칸트는 이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유를 근원으로 한 실천적 삶의 영역과 인과율을 근원으로 하는 과학적 인식의 영역에 선을 그어 구분한다.⁶⁾ 또한 그러한 체계에 의해 야기되는 수용적 감각자료의 본체인 물자체가 주체의 타자로서 존재하며 이것이 주체의 능동성에 제한을 가져온다.

4) 이광모, 「이성의 자기구성과 독일관념론의 출발」, 『헤겔연구』, 제23집, 한국헤겔학회, 2008, 243쪽.

5) 같은 책, 243~244쪽.

6) 같은 책, 245쪽.

이처럼 인식의 작동 체계를 하나의 원리로부터 통합하지 못하고 물자체를 주체의 타자로 남겨 둔 점은 칸트 이후 그의 계승자들에게는 커다란 과제이자 새로운 체계를 향한 관문이 되었다. 칸트의 계승자 라인홀트는 칸트 체계 내의 이 문제를 전제와 근거의 부재로 파악하고 체계의 근간이 되는 근원적 전제를 찾고자 했다.⁷⁾ 선험철학을 하나의 최고원칙으로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를 처음으로 시도한 라인홀트는 철학이 절충적이며 분열된 체계를 벗어나 하나의 완벽한 근본으로부터 연역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전제적이며 단적으로 자명한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의 시도가 비록 칸트의 물자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가 칸트로부터 발견한 문제의식과 이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이 피히테에게는 독일관념론철학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한 큰 계기가 되었다. 피히테가 칸트에 대한 진보적 계승자로서 라인홀트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불멸의 공헌이라고 한 점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⁸⁾

라인홀트가 그의 논문 「철학의 보편타당한 제 1원칙의 필요, 가능성 및 특징들에 대하여」에서 그가 제시한 전체지식론의 최고원칙의 조건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다. 그 최고원칙의 조건이란 최고원칙 자체의 무전제성, 즉 증명될 수 없는 속성을 지녀야만 하고 그리고 그 원칙은 명백한 의식의 사실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그는 무전제적 최고원칙을 명백한 의식의 사실을 통해 드러난 표상능력으로 제시하고 이 표상능력을 기점으로 비관철학을 통일한다.⁹⁾ “표상의 의식 내부에는 이미 표상된 것으로서의 의식과 표상하는 자에 관한 의식이 서로 구별되는 동시에 서로에 관련되어 있다.”는 명제와 “표상이 주관을 축으로 주관과 객관으

7) 권기환, 「피히테의 자기의식론」, 205쪽.

8) 백훈승, 「피히테와 Tathandlung」, 『철학연구』, 제124집, 대한철학회, 2012, 106~107쪽.

9) 같은 책, 107쪽.

로 구별되고 또한 동시에 양자와 통일된다.”는 명제는 주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의식의 사실로서의 표상이 제1원리의 자리에 있음을 뜻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히테는 라인홀트의 칸트에 대한 문제의식 발견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시도에서 충분히 공감했지만 라인홀트가 제1원리의 자리에 표상을 둔 점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여기고 이것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해결을 시도한다. 그는 한 마디로 의식의 명제가 최고원칙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그는 무전제의 원리로 제시된 표상은 존재의 한 규정일 뿐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여 경험적 의식에 이르는 데 있어 표상의 매개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해서 표상이 최고원리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라인홀트는 타자로부터 비독립적이던 주체의 인식이 완전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방식과는 역으로 주체 내부에 이미 존재의 본래 모습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의 근본 자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여 무규정성으로부터 규정성으로의 진행과정과 제1원칙이 가진 통일적 힘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피히테로부터 비판받는 결정적인 부분은 그가 단지 이론적 영역에 기대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있다. 표상이 주관과 객관을 종합하는 통일적 역량을 가진 것은 타당한 사실이지만 이론적 능력으로서의 이 표상의 힘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인홀트의 이론은 피히테에게 있어 예비학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전체지식론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명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하르트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로써 그 사실을 해석한다. 첫째로는 표상의 질료 속에 있는 소여성의 계기가 해소되지 않았고, 의식의 타자로서의 물자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로

10) 같은 책, 108쪽.

는 라인홀트가 표상을 제1원리에 둔 것이 그가 칸트의 의도와 부합하여 욕망의 능력을 표상 능력의 상위에 두었던 점을 자신의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¹¹⁾ 이론 이성의 작용 구조에 앞서 실천 이성이 근본 계기로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맞춰 연역적 체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히테는 라인홀트를 극복하여 독일관념론철학의 반석을 다졌다. 무엇보다 피히테가 라인홀트를 비판하고 그 비판한 점을 극복해나간 전반적인 과정에서 피히테 전체지식론 체계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볼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개념과 이 개념 사이의 상관적 이해에 있어 라인홀트에 대한 피히테의 비판은 반듯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III. Tathandlung의 총체적 특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험철학 체계에서 연역적 도출의 최고 원칙은 라인홀트가 제시한 “의식의 명제”가 지시하는 현상적 심급일 수 없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실의 명제들은 의식의 기재로부터 표출되어 나오는 하나의 말단(末端)이다. 따라서 사실들은 근원적 원리의 그림자일 뿐 최초의 무제약적 출발점일 수 없다. 사실들은 그 본질상 의식의 법칙 아래에 있으므로 의식 속에는 사실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은 의식의 최종 근거로서 기계적이며 이론적인 것이 아닌 활동적인 하나의 생명력과 같은 것이므로, 순수한 이성은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성의 본래적 성질은 이론적 사실적 능력 위에서 그

11) 니콜라이 하르트만, 『독일관념론철학』, 이강조 옮김, 서광사, 75쪽.

능력을 포괄하고 있는 상위의 능력으로서의 실천적인 능력이다. 이론철학에 대한 실천철학의 우위만이 주체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독자성을 보장한다. 주체의 자유와 의식에 대한 구축능력의 자발성은 이론적 능력이 아닌 실천적 능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실천 철학만이 최초의, 최상의 원칙을 줄 수 있는 반면, 이론 철학은 실천적 능력의 영향 아래 표상의 스펙트럼을 궤적으로 남긴다. 이러한 표상의 궤적은 자립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론적 자아와 비아 사이의 대립이 지양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드러난다.¹²⁾ 대립의 지양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어떤 것, 그것은 실천적인 본성 아래 이론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피히테는 그것을 Tathandlung이라고 칭했다.

그 원칙은 우리 의식의 경험적 규정 아래 나타나지도 않고 또 나타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Tathandlung을 표현해야만 한다. 이 Tathandlung의 서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그 점은 우리 정신의 본성에 의해 이미 배려되어 있다-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할 만하다.¹³⁾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의 전체지식론의 원칙 첫 부분에 제시된 위 내용을 보면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절대적인 제1원칙이 우리 의식의 경험적 규정 아래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날 수도 없으며 모든 의식의 가능 근거로서의 Tathandlung을 표현해야한다고 한다. 제1원칙이 곧 Tathandlung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1원칙의 명제가 Tathandlung에 대한 술어라는 말이다. Tathandlung이 우리의 경험적 규정 아래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표현 가능한 물화된 대상이 아님을 알

12) 같은 책, 76쪽.

13)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16쪽.

수 있다. 그 본성과 작용의 전개 과정 전체를 밝히고 표현하는 것으로 Tathandlung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것은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텍스트 전체를 따라가는 양상이 달라진다. Tathandlung이 즉물화된 대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운동을 내재한 것이므로 피히테는 텍스트에서 이 운동의 전 과정을 명제를 통해 나열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지식론의 기초』 텍스트 전체는 Tathandlung의 운동성으로부터 표출되는 흔적을 추적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정립되고 자기 자신에 근거한 것은, 어떤 확실한(그리고 전 학문론을 통해 발생하게 될 모든) 인간정신의 행위의 근거이며, 따라서 인간정신의 순수한 성격이다. 요컨대 자기 자신을 통한 자아의 정립은 자아의 순수한 활동이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그리고 자아는 자기 자신을 통한 이러한 단순한 정립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즉 자아는 존재한다. 그리고 자아는 자기의 단순한 존재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를 정립한다. 자아는 행위하는 자인 동시에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활동하는 자이며,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행위의 성과는 하나이며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실행의 표현이다. 그리고 전 학문론으로부터 발생해야만 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Tathandlung의 표현이다.

(GdgW, in: GA I /2, 258 f.; SW I, 95 f.)¹⁴⁾

위의 텍스트에서 Tathandlung은 모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산물들을 산출하는 최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의 산물은 하나의 구체적 세계이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힘과 원리가 곧 Tathandlung이라는 말이다. 행위와 행위의 산물은 Tathandlung의 내부 운동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요소이다. 이 두 요소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서로의 선후를

14) 백훈승, 「피히테와 Tathandlung」, 110~111쪽.

구분할 수 없다. 이 둘의 분리와 구분이 가능하다면 Tathandlung은 지식론의 최고 기재라고 할 수 없다.¹⁵⁾ 행위와 행위의 산물이 하나이며 동일하므로 이 둘은 하나로서 생성하고 있다. 이 두 요소의 생성하는 활동이 모든 존재자 즉 자아와 비아라는 표상 내부에 주체 외부의 객체로부터 기인하는 현실적 의식 없이 독자적으로 의식 내부에서 기체(Substrat)를 갖게 만든다.¹⁶⁾ 또한 단적으로 무제약적인 절대적 주체로서의 자아는 그 아래 산출되는 절대적 주체의 반성적 객체로서의 자아와 그 자아에 단적으로 대립하는 비아 모두를 표상적 객체로 갖게 된다. 즉 자아란 단적으로 정립된 것 또는 주어로서의 자아와 그 정립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술어로서의 자아가 있다. 무규정적 자아와 규정적 표상으로서의 자아는 절대적 자아와 표상적 자아의 관계로서 이 둘의 순환 운동이 곧 Tathandlung이다. 이것을 명제로 나타내면 “지금까지 전개된 Tathandlung의 직접적 표현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나는 단적으로 존재한다. 즉 나는 단적으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또 나는 단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바대로의 그것이다. 그 둘 다 자아에 대해서 그러하다.”¹⁷⁾가 된다. 이 명제에서 주시할 부분은 명제 내부에서 피히테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는 단적으로 정립된 ‘절대적 자아’와 그 자아 아래에서 존재자의 모습으로 표상되는 ‘자아와 비아’ 사이의 매개 운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도이다. Tathandlung을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행간에 숨겨진 운동의 모습을 자각하는 가운데 있다.

피히테는 의식 내부의 Tathandlung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써 주체로부터 출발하는 비판철학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그 비판철학을 자아 자체가 사

15) Tathandlung의 총체적 특성은 양적 종합의 뜻이 아닌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는 극단적 개념 사이의 생성 운동의 통일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이면서 둘인 개념 따라서 Tathandlung을 이루는 근본 요소를 분리하면 그 운동은 상실하고 본체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16)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23~24쪽.

17) 같은 책, 24쪽.

물에 의존하는 독단적 체계와 달리 모든 것을 자아 안에 정립하는 내재적인 체계로 정의한다.¹⁸⁾

그리고 Tathandlung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체지식론의 원칙에서 드러난 순환 논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 Tathandlung을 인간적 지식의 기초로서 단적으로 사유해야만 할 때 따르게 되는 그런 법칙(일반논리학의 법칙) 또는 같은 말이지만 반성이 따라야 하는 그런 규칙은 아직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알려지고 확정된 것으로서 암묵적으로 전제될 뿐이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 법칙은 우리가 찾고자 한 제1원칙으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칙의 설정은 단지 그 법칙의 타당성의 조건하에서만 타당한 것이 된다.¹⁹⁾

순환의 문제에 대한 접근 전에 우선 지식론과 일반 논리학의 성격에 대한 피히테의 견해를 살펴보자. 지식론과 논리학 모두가 개별학문에 선행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한 피히테의 주장에 의하면 논리학의 주제는 학문의 형식일 뿐이지만, 지식론은 그 형식과 내용 간의 생성 운동을 주제로 가진다. 지식론에서 형식과 내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그에 반해 논리학은 모든 경험적 사실을 추상하는 데 국한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철학적 학문 즉 총체성과 운동성을 갖춘 최고 보편의 학이 아니다. 따라서 철학적 체계의 근거는 논리학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식론에 의해 가능해진다. 피히테는 논리학과 지식론의 차이를 다음의 예로써 설명한다. 논리학의 정형화된 명제는 'A=A'이지만 지식론의 타당한 명제는 Tathandlung을 표현한 '나=나'이다.²⁰⁾ 논리학적 명제는 생성의 운동을 가질 수 없으므로

18) 같은 책, 47~48쪽.

19) 같은 책, 17쪽.

20) 비토리오 회슬레, 『헤겔의 체계 1』, 권대중 옮김, 한길사, 2004, 96쪽.

단지 보편과 개별 사이의 규정적 매개만 가능하며 Tathandlung을 표현한 지식론의 명제는 존재의 모든 범주적 요소 사이의 생성 운동을 내재한다.

피히테가 지식론의 원칙과 논리학의 규칙 사이의 순환이 불가피한 순환이며 자유롭게 인정되므로 일반 논리학의 모든 법칙에 의거해서 그 최고의 원칙을 설정해도 된다는 것²¹⁾은 지식론과 논리학의 성격과 그 관계에 의해 이해해볼 수 있다. 지식론의 원칙은 경험적 규정 아래에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 본래의 모습인 Tathandlung을 표현한다. 이 Tathandlung은 결코 우리의 의식 표면으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없는 총체적 보편성으로 그 내부에 이미 인간 의식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따라서 Tathandlung을 표현한다는 것은 Tathandlung의 모습 그 자체를 의식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매개체란 일반논리학의 규칙으로 이 규칙이 근원을 향해 침투하는 하나의 현상적 입구로 작용하여 Tathandlung의 작용을 드러다 보게 되는데, 그 작용을 보게 된 결과를 명제로 나타낸 것이 Tathandlung을 표현한 전체지식론의 원칙이 된다. 피히테가 말한 Tathandlung의 표현으로서의 원칙과 논리학의 규칙 사이의 타당성이 서로에게 동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Tathandlung은 인간 의식의 근본적 힘이자 원리이므로 모든 사유 활동 속에 완전성으로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식론의 원칙과 일반 논리학의 규칙 위에 있으며 이 둘의 명제를 산출하는 과정인 반성과 추상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관계한다. 즉 Tathandlung 자체의 완전성이 이미 이 두 명제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추상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다 볼 때 타당성을 사이에 둔 둘 사이의 일종의 순환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피히테가 우리 정신에 이미 배려되어 있다²²⁾고

21)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17쪽.

말한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지식론의 원칙과 일반논리학 이 둘은 Tathandlung이라는 의식의 근본 작용에 대한 표현과 그 표현에 다가서기 위한 의식의 경험적 논리 규칙으로 추상과 반성을 통해 서로의 명제가 명료해진다. 제1원칙의 예지적 특성과 일반논리학의 현상적 특성 이 둘 사이에 배태된 명제들의 타당함은 이미 Tathandlung에 의해 보장되며 단지 전체지식론의 원칙을 향해 가는 과정을 포착하는 순간 Tathandlung의 운동성이 상실하고 서로간의 상대성으로 인해 양자 서로의 타당성에 대한 의존적 순환으로 보이게 된다. Tathandlung의 활동이 인간 정신의 본성으로 이미 모든 타당성을 보장하며 일반논리학의 규칙을 통한 추상과 반성이라는 의식 작용은 그 미지의 완전성을 지식론의 원칙이라는 명제의 그림으로써 드러낼 따름인 것이다.

요컨대, Tathandlung은 존재의 필연적 분열과 통합에 대한 근원적 총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의식은 절대적 주체로서의 자아와 그 반정립에 의해 산출되는 사실적 의식의 근원처가 된다. 이러한 자기정립에 의한 절대적 자아와 반정립에 의해 전개되는 사실적 의식의 동시적 성립은 Tathandlung의 필연적 총체성이 보여주는 분열과 통합의 전개양상이다.²³⁾

IV. Tätigkeit의 생성(生成)적 특성

대논리학에서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이 절대적 학문의 시원은 그 자체가 곧 절대적 시원으로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전제되어서는 안 되며 단적으

22) 같은 책, 16쪽.

23) 백훈승, 「피히테와 Tathandlung」, 112쪽.

로 하나의 직접적인 것이다. 그가 말한 존재와 무의 생성이 단적이며 직접적인 것으로서의 시원이며 그것은 피히테의 전체지식론 체계의 영향하에 있다.²⁴⁾ 그러한 생성의 모습은 피히테의 Tätigkeit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적으로 정립되고 자기 자신에 근거한 것(자아는 존재한다)은 인간 정신의 한 특정한 (그리고 전체 지식론이 제시하듯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인간 정신의 순수한 특징이 된다. 즉 그것은 Tätigkeit이 특수한 경험적 조건을 떠나 활동성 자체의 순수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자기 자신에 의한 정립은 자아의 순수 활동성이다. ...이와 같이 자아는 행위하는 자이며 동시에 행위의 산물이다. 즉 자아는 활동적인 것이며 동시에 활동성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행위와 사실이 하나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아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Tathandlung의 표현이며, 그것도 전체 지식론으로부터 귀결되듯이 유일하게 가능한 Tathandlung의 표현이다²⁵⁾

위 텍스트에서 ‘단적인 정립, 자기 자신에 근거한 것’에 주목해 보자. 이것은 무전체의 자립성, 자기원인성²⁶⁾이라는 특성이 인간 정신에게 주어진 주체적 본성이라는 말이다. 특수한 경험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는 능동성이 인간 정신의 본성이라면 그 활동성은 모든 창조적 조건을 자기 내부에 끌어안고 있는 살아있는 역능(力能)이다. 행위의 주체가 곧 그 행위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서로를

24) 헤겔, 『대논리학』, 임석진 옮김, 벽호, 58쪽.

25)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21쪽.

26) 자기원인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실체로서의 신을 정의한 중요한 특성이다. “나는 자기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을 통해 스피노자가 자아 너머에 설정해 둔 실체로서의 신과 피히테가 자아 내부에 내재된 인간 정신의 본성이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재론이 말하는 신의 자립성으로부터 비판적 관념론이 말하는 인간의 자립성으로의 이행 속에서 근대적 주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힘이 모든 창조적 조건을 품고 생성 운동 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전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활동의 조건을 갖춘 가운데 오직 스스로 활동한다.

전체 활동성은 두 개의 운동 방향으로 범주화됨으로써 창조적 행위와 그 창조의 산물이라는 활동성의 구체적 모습을 형성한다. 창조적 행위는 행위이면서 하나의 무한한 창조적 주체로서의 자아로 규정되며 창조의 산물은 하나의 산물이면서 무한성과의 일치를 향해 끊임없는 객관적 분열을 이루고 있는 자아와 비아이다.

전체 활동성의 두 운동 범주는 이론과 실천에 각기 대응하는 객관적 활동성과 순수 활동성이다. 이론은 자아가 자신을 자아와 비아로의 이원적 분열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외화 하여 외화 된 객체로서 무한성을 동경하는 활동이라면, 실천은 역으로 자기 내부를 향해 침잠해 객체의 분열을 와해하는 무한성을 향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활동성과 순수 활동성 양자는 무한성의 이념 하에 서로 하나의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즉, 이론적 작용이 주객 분열의 표상적 이원화 과정이라면, 실천적 작용은 주객 합일의 통일성을 자기 내부로 침잠시키려는 절대적 주체의 비표상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자아는 이원화되어 유한한 표상적 자아라면, 실천적 자아는 비아에 기대어 규정된 반성적 객체로서의 자아가 아닌 자아 비아의 표상이 소멸된 무한한 자아가 된다.²⁷⁾

정리하자면, 피히테는 절대적 자아 즉 의식의 근원적 모습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활동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자아의 본질은 그것의 활동에 있다.”²⁸⁾, “즉 자아는 활동적인 것이며 동시에 활동성에 의해 산출된 것

27) 한자경, 「피히테의 자아관」, 『철학연구』, 제53호, 대한철학회, 1994, 46쪽.

28) 백훈승, 「피히테와 Tathandlung」, 112쪽.

이다.”²⁹⁾라고 했듯이 그는 의식의 근원은 고정된 물성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성으로 본다. 활동성이 살아 움직이는 생성으로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동적 힘이 내부를 구성하는 두 개의 보편 범주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Tathandlung이 행위와 사실이라는 양대 범주를 내부 운동의 요소로 품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데, 활동성은 순수활동성과 객관적 활동성이라는 양대 범주를 내부 운동의 요소로 품고 있다. 이 두 요소는 무한성의 이념 하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자기의식에 있어 이 두 요소의 관계는 일종의 이율배반이 된다.

그러므로 무한한 것과 객관적인 것을 함께 정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이다. 객체와 관계하는 것은 유한하다. 그리고 유한한 것은 객체와 관계한다. 이 모순은 객체 일반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달리 지양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객체는 완성된 무한성 안에서가 아니라면 사라지지 않는다. 자아는 자신의 욕구의 객체를 무한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객체가 한 규정된 순간에 무한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닐 것이며 무한성의 이념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다.³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활동성이 무한을 향한 순수활동성과 유한을 향한 객관적 활동성으로 상호 규정하는 순환 운동을 할 때 이것을 인식하는 자기의식에게는 일종의 사명이 각인되는데 이것이 주체에게 끊임 없는 능동적 생성을 부여한다. 전체 활동성에게는 무한과 유한의 운동이 그 본성상 하나의 생성으로 일체 되어 있지만 자기의식의 형성 과정에서 그 일체 된 생성은 순환 규정으로 분리되고 이 사이에서 유동하는 자아는 그것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려 한다.³¹⁾ 주체의 생성적 특성은 바로 무

29)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21쪽.

30) 같은 책, 210~211쪽.

한과 유한의 모순에 대한 해소의 사명감 가운데 생겨나는 주체의 숙명이자 자기 원인적 권리이다.

V. Streben³²⁾의 지속적 특성

앞서 피히테는 무한으로의 복귀를 향한 자아의 활동을 순수 활동성이라 부르고 비아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유한한 것으로 정립하는 표상 활동을 객관적 활동성이라 정의했다. 의식의 이러한 활동성이 주체의 능동성을 나타낸다면 의식의 주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 ‘Streben’을 통해 나타난다. 피히테는 자아의 활동성이 곧 Streben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상이 가진 복합적인 특성을 나누어 기술하면서 생긴 구분이다. 그렇다면 피히테가 Streben을 통해 활동성이 가진 능동적 생성의 특성 이외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립적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는 지 살펴보자.

비규정적 욕구 일반-그것이 비규정적인 한에서는 객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물론 욕구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부를

-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완성되어야 할 무한성의 이념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며 우리 본질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우리가 그 모순의 해결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또 모든 영원성으로 연장된 우리 현존재의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그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 본질의 요구에 따라 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한다. 즉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사명으로서 각인될 것이다.”,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211쪽.
- 32) Streben은 국내에서 ‘욕구, 추구, 노력’으로 번역된다. 이 개념의 한국어 번역의 부작용은 단어의 선행적 이미지가 이 개념 원래의 의도를 감춘다는 데 있다. 따라서 Streben에 대한 번역은 이 개념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지 피히테 지식론 체계 속에서 주체의 자립적 특성을 나타내려는 그의 의도를 통해서 다가가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treben에 대한 번역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명칭도 가지지 않으며 더욱이 가질 수도 없다. 그것은 모든 규정 가능성의 밖에 있다.은 무한하다. 그러나 비규정적인 욕구 일반은 그 자체로는 의식에 나타나지 않으며 의식에 나타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식은 오직 반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반성은 오직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구에 대해 반성하자마자 욕구는 필연적으로 유한한 것이 된다. 정신은 욕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그것을 다시 확장한다. 그러나 정신이 자신에게 욕구가 무한한가라는 물음을 던지자마자 이 물음에 의해 욕구는 다시 유한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³³⁾

이 텍스트는 자기의식 이전 Streben 원래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반성과 규정을 거치지 않은 Streben, 다시 말해 객체라는 대상을 통해 상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Streben은 무한성 그 자체로 잠재해 있다. 이것이 이론적 능력을 통한 주객의 표상 구분과 결합하여 그 작용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유한적 구분 속에서 비로소 Streben은 무한성과 유한성의 모순 가운데 끊임없는 운동의 균형을 지속하고자 한다.³⁴⁾ 즉 자아와 비아의 표상적 불일치와 자아와 비아의 동일성과의 모순 사이에서 양자 포괄을 목표로 한 그 지양적 균형 운동을 지속한다. 그것은 곧 무한성과 유한성의 긴장을 유지하는 Streben의 지속적 역량이 없으면 객체 자체도 산출될 수 없다는 것과 절대적 자아의 무한성도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한다.³⁵⁾

33)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210쪽.

34) 헤겔은 피히테의 Streben이 자아와 비아의 대립과 그 대립을 동일성으로 이끌려는 모순적 사태의 지양될 수 없는 흐름을 독일관념론 체계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그는 피히테 체계의 이러한 모순의 지속 운동으로부터 그 모순을 가능케 하는 절대자의 생성 운동으로 나아간다.

35) “그러므로 절대적 자아는 자기 자신을 단적으로 비아(-Y)에 연관시키는데, 이 비아는 그 형식에 있어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아 밖의 어떤 것인 한) 비아이여야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와 완전하게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아는 형식상으로나마 비아이여야 하는 한, 자아와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아에 연관된 자아의 활동성은 (실제적인 같음의)

이러한 지속성은 활동성이 담지해내지 않은 또 하나의 주체의 자립적 특성이다. 모순을 내포한 개념의 운동이란 곧 능동적 생성임과 동시에 지속성이다. 모순 사이에 발생하는 창조적 긴장의 끊임없는 전개는 그 긴장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지속성 가운데 있으며 그 지속성은 외부 작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기 내부로부터 원인이 되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Streben은 의식의 주체적 작용이 가진 ‘지속적 특성’ 즉 ‘운동을 유지하여 나아가려는 자립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운동의 진행 자체와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지속 작용은 곧 근원적 의식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것이다.

Streben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향적 특성이란 자기근거이자 무전제적인 Tathadlung으로서의 근원적 자아가 무한과 유한의 모순 가운데 총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추진력으로서의 특성인 것이다.

VI. 결론

피히테는 스피노자의 초재적(transzendent) 독단론을 비판하고 그의 체계로부터 내재적(immanent) 비판 철학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 때 피히테에게 주어진 과제는 절대자아가 의식 외부의 타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단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 근거지어지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

규정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단지 그런 같음의 규정을 향한 욕구, 경향일 뿐이다. ...그러나 이 욕구는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의 절대적 정립에 의해 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탐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자아의 순수 활동성은 가능한 객체와의 연관에 있어 일종의 욕구이며 그것도 앞의 증명에 따르면 무한한 욕구이다. 이 무한한 욕구는 무한한 것으로 나아가서 모든 객체의 가능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욕구가 없으면 객체도 없다.”,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202.

것은 절대적 자아가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어떠한 상위의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의해 증명된다.³⁶⁾ 독단론에서는 자아가 사물 속에 정립되지만 비판철학에서는 반대로 사물이 자아 안에 정립된다. 달리 말하면 독단론에서 인식 주체는 필연적으로 타자 즉 자아 너머에 있는 실체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지며 비판철학에서 자아는 자아 내부에 실체의 원리가 내재되어 자립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단론은 스피노자의 체계가 그렇듯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가도 우리의 제2원칙과 제3원칙까지만 나아갈 뿐, 단적으로 무제약적인 제1원칙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³⁷⁾라는 피히테의 말에서 스피노자의 인식 체계가 최상위의 원리를 실체라는 인식의 타자로부터 기대고 있고, 그의 비판 철학은 외부의 실체에 기대는 대신 단적으로 무제약적인 제1원칙을 최상위의 원리로서 의식 내부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근대적 주체의 자립성은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의식의 단적으로 무제약적인 자립적 근거의 내용을 피히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지식론의 이론적 부분은 단지 마지막 두 원칙으로부터만 전개되며, 거기에서 제1원칙은 단지 통제적 타당성만을 가질 뿐인데, 이 부분은 때가 되면 보여 지듯이 실제로 체계적 스피노자주의이다. 다만 지식론에 있어서는 각각의 자아가 자체가 유일한 최고 실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계는 거기에다 실천적 부분을 첨가하는데, 이 부분이 제1원칙을 근거지우고 규정하며 그럼으로써 전체 지식론을 완성하고 또 인간 정신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된다.³⁸⁾

36)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1996, 47쪽.

37) 같은 책, 50쪽.

38) 같은 책, 50쪽.

피히테는 독단론의 인식 체계가 외부 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보았으므로 외부 실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대신할 수 있는 역량이 의식 내부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설정에 대한 설명의 명증성을 통해 비판 철학의 의식은 완전히 자립적인 주체가 된다. 위의 텍스트를 볼 때 피히테는 그 부분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제1원칙의 통제적 타당성이 체계적 스피노자주의로 드러난다는 것과 의식을 가진 각각의 자아가 유일한 최고 실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실체가 가진 근원으로서의 역량과 의식에 내재하는 최고 원리의 역량이 일치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의 실체에 기댄 비자립적 의식 주체로부터 각각의 의식이 이미 개별적으로 근원적 역량을 내재하고 있는 자립적 주체로의 이행은 의식 주체의 근대적 자립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는 이러한 피히테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지식론 체계에 등장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이 피히테 체계에서 의식의 자립적 특성을 보장하는 주요 요소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피히테에 의하면 의식의 최고 근거는 스피노자적 실체의 특성과 실천적 부분의 특성 모두를 만족할 때 완성된다. 그렇다면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이 실체적 특성과 실천적 특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이 세 요소가 인간 의식의 근대적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본론에서의 논의를 볼 때, 실체적 특성은 Tathandlung의 총체성과 대응하며 Tätigkeit의 생성과 Streben의 지속성은 실천적 특성에 대응한다. 실체가 가진 완결성은 현상의 다양성이 표출되는 근원이며 Tathandlung이 가진 행위와 행위의 성과라는 두 범주는 의식 현상이 표출되는 근원인 점에서 Tathandlung의 총체적 특성은 실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Tathandlung의 이러한 실체적 특성에 대해 Tätigkeit, Streben은 실천적 특성을 거기에 더한다. Tätigkeit은 무한성의 이념을 축으로 무한성을 향

한 절대 자아와 표상적 자아와 비아의 유한적 전개를 이끄는 살아있는 능동적 생성의 힘이다. 또한 Streben은 이 운동의 긴장을 지속적이게 한다. 능동성과 지속성은 자기원인에 기반 한 창조적 힘과 같은 것이며 총체성과 결합하여 살아 있는 하나의 완전한 창조적 본체가 된다.

또한 이 세 개념의 혼연일체의 특성이 의식의 자립성을 보장하게 되는데, 본고에서 서술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총체성, 생성적 특성, 지속성은 의식의 자립성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다시 말해 저 세 요소는 하나의 힘이자 본체로서 분리되지 않은 채 의식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층적이며 복합적이며 완전적인 것이 본체의 특성이듯 의식의 본체 또한 그러해야 한다. 근대적 주체의 자립성은 타재적이 아닌 내재적인 의식적 완전성을 통해 보장되는데 피히테는 그것을 자신의 체계에서 주요 목표로 삼고 지식론 체계를 그러한 본체적 특성에 입각하여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총체성, 생성적 특성, 지속성의 혼연일체의 특성은 피히테 체계의 기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론의 토대에서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 이 세 요소의 일체성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 진다면 피히테가 지식론 체계에서 말하고자 한 의식 주체의 자립적 근거 확립이라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며 지식론 체계가 서술되어 가는 주요 원리 또한 파악하기 힘들다.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은 완전체이며 스스로 운동하며 그 능동적 생성 운동을 지속하려는 살아있는 의식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요소의 작용이 어우러져 그것으로부터 모든 구체적 세계가 펼쳐진다.

요컨대, ‘근대 주체성의 근거’는 ‘총체성 · 능동성 · 지속성’에 각기 상응하는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의 일체성 가운데 있다. 이 세 요소의 종합적 작용은 실천적 특성과 독단론에서 의식 주체가 의존하던 실체적 특성과의 합일인데 이것으로 주체는 완전한 자립성을 가지고 세계

철학탐구 제45집

해석의 근거를 자신으로부터 찾고 삶과 세계의 본질을 스스로 구축해나갈 권리와 역량을 보장받게 된다.

참고문헌

- 가토 히사타케 외, 『헤겔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2009.
- 니콜라이 하르트만, 『독일관념론철학』, 이강조 옮김, 서광사, 1990.
- 백훈승, 「피히테와 Tathandlung」, 『철학연구』, 제124집, 대한철학회, 2012.
- _____, 『피히테의 자아론: 피히테 철학 입문』, 선아출판사, 2004.
- 비토리오 회슬레, 『헤겔의 체계 1』, 권대중 옮김, 한길사, 2004.
- _____, 『21 세기의 객관적 관념론』, 나종석 옮김, 에코리브르, 2007.
-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2007.
- 이광모, 「이성의 자기구성과 독일관념론의 출발」, 『헤겔연구』, 제23집, 한국 헤겔학회, 2008.
- 한자경, 「피히테의 자아관」, 『철학연구』, 제53호, 대한철학회, 1994.
- 헤겔, 『대논리학』, 임석진, 벽호, 1997.
- J.G. 피히테, 『전체지식론의 기초』, 한자경 옮김, 서광사.
- Fichte, J.G., 『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Hamburg 1988.
- _____, 『über den Begriff der Wissenschaftslehre sämtliche Werke I ba』, berlin 1845.

The Study on the Theory of Entire Knowledge of Fichte as the Basis of Modern Identity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 of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 -

Kim, Dae Hyeon (SungKyunKwan Univ.)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to determine that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 of Fichte’s main concepts guarantee modern identity in his system. Modern identity has ultimate basis of consciousness in the inner self. In other words, that is complete independence.

He has ever said that characteristic of final foundation is in synthesis of Spinoza’s substance and practical area. Therefore,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 must possess synthesis of Spinoza’s substance and practical area and then these three elements can be foundation to modern identity of human consciousness.

And the substantive features correspond to Tathandlung of totality and the activeness of tätigkeit and the sustainability of Streben correspond to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Completeness of substance is the source from which diversity of phenomena spews and totality of Tathandlung is substantive characteristic in terms of the product of acts and actions that Tathandlung possesses are source from which sense of phenomena is displayed. Tätigkeit, Streben put practical attributes into Tathandlung. Tätigkeit is living active power which leads unfolding of the infinity and finitude with the idea of infinity as the center. And Streben make the tension in activeness last. Activeness and durability is equal to creative power caused by causa Sui and It becomes living

complete substance of creativeness in combination with totality.

In its essence, ‘Tathandlung · Tätigkeit · Streben’ is the united whole and moves by itself and is symbolic of living power lasting active movement. These elements can’t be divided and constitute a whole. Based by this the human identity gets perfect independence and is assured of right to construct the essence of life and world by oneself.

Key words: Tathandlung, Tätigkeit, Streben, modern identity, Fichte

김대현 E-mail: ditto-1225@hanmail.net

투 고 일	2017년 01월 15일
심 사 일	2017년 01월 26일
게재확정	2017년 02월 25일